

국제이전가격결정에 있어서 비시가기준의 선택에 따른 다국적기업들의 특징변수*

나 영

중앙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
(*navyoung@cau.ac.kr*)

김중식

중앙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kimjs@cau.ac.kr*)

이정기

남서울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전임강사
(*laejk@nsu.ac.kr*)

이선표

대원공과대학 세무회계과 전임강사
(*splee@daewon.ac.kr*)

본 연구에서는 국제이전가격결정에 있어서 비시가기준을 전략적으로 선택함에 있어서 다국적기업의 환경적·기업특성적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141개의 다국적기업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였고, 독립변수인 다국적기업 내·외부 환경요인을 확정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32개의 항목을 선정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이 요인분석을 통하여 결정된 5개의 요인들을 모형변수로 포함시키고, 표본대상기업인 모기업소재국 그리고 기업규모 등 2개의 기업 특성적 변수를 모형에 추가하여 프로빗(PROBIT)분석을 실시하여 다국적기업이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을 선택할 때 어떠한 요인들이 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다국적기업의 세무적요인들과 기업규모는 국제이전가격전략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다국적기업의 경제적요인과 합작요인, 정치·사회적요인 그리고 기업의 내부요인 등은 국제이전가격결정에 중요하지 않거나 혹은 영향을 미치지더라도 부수적인 결정요인으로 고려되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모기업소재국이 어디냐에 따라 국제이전가격결정을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결정에 따른 조세대응에 있어서 상이한 국가간의 환경적 차이를 명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해외진출 다국적기업의 실무자가 국제이전가격결정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변수를 규명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리라 기대된다.

1. 서 론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s ; MNE)이 세계시장을 상대로 성공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외 현지법인의 실적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국적기업은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통제 및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데, 이때 국가간의 정치·사회적 차이, 법적 규제, 수출입 규제 그리고 자금이전에 대한 통제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이와같이 다국적기업은 자국내에서만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에 비해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은 국제이전가격결정전략(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strategies)의 선택

시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활동을 적정하게 보상함과 동시에 모기업의 소재국과 현지 주재국의 다양한 조세, 문화 그리고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기업의 이익극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양면성 때문에 다른 의사결정보다 더욱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국적기업이 행하는 국제이전가격결정전략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市價基準¹⁾에 의한 移轉價格決定(market-based transfer pricing)으로 다국적기업의 관계회사간 국제이전거래를 할 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격을 사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非市價基準에 의한 移轉價格決定(nonmarket-based transfer pricing)으로 다국적기업의 관계회사간 국제이전거래를 할 때 시가 이외의 다양한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 즉, 원가, 이익가산원가, 협의 가격, 기회원가 및 이원가격 등을 사용하는 것이다.

중간제품에 대한 시장이 경쟁적이고 현지법인간의 상호의존성이 최소인 경우, 시가는 가장 바람직한 국제이전가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계 각국의 국제이전가격제세에서도 관계기업간 국제이전거래에 있어서 시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가를 국제이전가격으로 사용하려면 공급자회사는 내부의 구매자회사에게 판매하지 않을 선택권을 지녀야 하고,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중재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하기도 한다.

반면에 비시가기준은 제품을 제조한 기업이 경쟁적인 외부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즉, 과잉설비, 기업의 상황, 내부목적 그리고 경쟁정도 등에 의해서 시가가 아닌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비시가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임의로 정하는 가격이므로 주관적이고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다국적기업이 국제이전가격으로서 비시가기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업종 및 특성이 다르고 관리목적도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특정한 기준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²⁾

그러나 다국적기업이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으로서 비시가기준을 사용할 경우 시가기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국제이전가격을 조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자국의 과세권방어차원에서 국제이전가격결정에 있어서 비시가기준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국적기업이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으로 비시가기준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떠한 내외부 환경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다국적기업이 국제이전가격결정전략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독립변수인 다국적기업 내외부 환경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Arpan(1972), Salem(1986), Al-Eryani et al.(1990), 박경열(1990) 및 이인재(1992) 등의 선행 연구들을 이

- 1) 시가기준은 Hirshleifer(1956)에 의해 처음 주장되었으며, 중간제품에 대하여 기업내부에서 거래하는 것과 기업외부에서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하는 기술독립, 수요독립이 함축되어 있는 이전가격결정방법이다. 이 기준을 국제이전가격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개는 기업 외부와의 실제거래로 확인된 금액을 국제이전가격으로 사용하나 때때로 시가에서 판매비를 차감한 순실현가능가치(net realizable value: NRV) 즉, 販賣費差減市價를 국제이전가격으로 사용한다. 그 이유는 관계회사간 내부거래를 실시하는 경우 외부거래를 하는 경우에 비하여 판매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비시가기준의 선택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으나, 국가간 법인세율의 차이, 현지법인의 이익, 배당금에 대한 본국송금의 제한, 수입관세, 가격통제 및 정치적 불안정 등과 같은 기업내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비시가기준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hulman, 1967, 1969; Burns, 1980).

용하였으며,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결정방법에 관한 실질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설문조사방법을 선택하여 연구하였다.

II. 선행 연구의 검토

기존의 국제이전가격결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분석해 보면 (1)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과 (2) 국제이전가격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첫째, 국제이전가격의 결정방법에 관해 Business International Corporation(1965)에 의하면 미국의 다국적기업은 개별공장원가를 무시하고 이익가산제조원가나 가장 효율적인 제조단위의 제조원가에 일정한 이익률이 가산된 가격을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Greene과 Duerr(1970)에 의하면 대부분 미국 다국적기업은 원가가산가격이나 협의가격을 기준으로 이전가격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또한 Arpan(1972)은 미국에 본사를 두지 않는 다국적기업은 관계회사간 이전거래에서 시장가격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Tang 등(1979)에 의하면 미국의 다국적기업은 시가기준, 일본의 다국적기업은 시가가 아닌 이익가산제조원가를 이용하여 국제이전거래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연구자·연구시기·연구배경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환경요인들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Shulman(1969)은 법인세율, 수입관세, 환율변동, 현지법인의 시장정보 등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국제이전가격결정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으며, Lecraw(1985)

도 관세, 정부가가격규제, 자본이득 송금통제 등을 줄이기 위하여 비시가기준을 이용하여 국제이전가격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Benvignati(1985)는 광고비, 이전거래의 크기, 진출국의 수 등은 국제이전가격결정전략에서 비시가기준을 사용하도록 하지만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에 있어서는 시가기준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Wu와 Sharp(1979)의 연구에서는 시가가 존재할 경우 기업들은 시가를 이전가격으로 사용하며 반면에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업에서는 전부원가법, 협의가격 등 비시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l-Eryani 등(1990)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 진출할 경우 현지법인과의 이전거래에 있어서 어떤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을 선택하며, 환경요인이 무엇인지를 설문지를 통해 조사한 결과,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이 사용하는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으로 비시가기준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있어 각각 66%, 62%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반면에 시가기준은 각각 34%, 38%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제이전가격결정전략의 선택에 있어서 법적인 제약과 기업규모가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 있어서 박경열(1990)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진출동기와 국제이전거래에 있어서 국제이전가격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분석한 결과, 시장확보 및 경쟁력 제고, 환율변동, 상품 등의 거래규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인재(1992)는 국제이전가격결정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들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해외에 진출한 한국의 다국적기업 144개 대상으로 설문지조사를 한 결과, 모든 환경요인들이 조세회피성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많은 학자들이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대한 연구를 한 바 있으나 연구에 선정된 환경요인의 종류는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것은 연구자들이 연구하였던 시기와 대상국가 또는 대상기업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연구의 목적이나 방법에 따라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이 국제이전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환경요인은 매우 많으며, 때와 장소에 따라서도 그 중요성을 달리하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행 연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국제이전가격결정행위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시대상황 및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재검토하는 일변도로 연구를 수행해 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다국적기업의 국제이전가격이 비시가기준을 선택할 경우 국제이전가격을 조작할 가능성이 발생할 것이라는 데에 초점을 두고, 다국적기업이 국제이전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표 2-1>의 환경요인을 이용하여 그러한 기업들의 특징변수를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다국적기업의 국제이전가격결정과

관련된 환경변수들이 국제이전가격결정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순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첫째, 국제이전가격과 관련된 32개 환경변수들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환경차원을 규명하였다. 그 이유는 선행 연구로부터 도출된 많은 환경변수들을 가지고 그들이 국제이전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경우, 32개 변수들 각각에 대한 설명을 연계시켜 결론을 유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복잡하게 보이는 변수들의 관계를 더욱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들끼리 묶어 줌으로서 그 관계를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5개 환경차원 (environmental dimension),³⁾ 모기업 소재국 그리고 기업규모 등을 독립변수로 하고, 다국적기업의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을 반응변수(response variable)로 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3.1 가설의 설정

다국적기업의 국제이전가격결정과 관련된 환경요인 및 기업 특성적 변수들이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3.1.1 다국적기업의 세무적 요인 가설

다국적기업의 세무적 요인은 법규 및 통관에 관한 것으로 법인세율이나 법규상의 차이, 투자본국

3) 국제이전가격결정과 관련된 환경요인들에 대해 요인분석을 한 결과, 최종적으로 5개의 환경차원이 선정되었는데 (1) 세무적 요인에는 법인세율 및 법규상의 차이 등이 포함되며 국제이전가격결정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2) 경제적 요인에는 인플레이션, 환율변동 등이 있다. (3) 합작요인에는 합작투자비율 등이 있으며, 다국적기업의 관계회사간 국제이전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4) 정치·사회적 요인에는 현지국의 정치적 안정 등에 여기에 속하며, 국제이전가격결정과 관련하여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5) 기업의 내부요인에는 모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들 수 있다.

〈표 2-1〉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국제이전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구 분	연 구 자									
	1	2	3	4	5	6	7	8	9	10
환경요인										
1. 법인(상속)세율 및 법규상의 차이	√	√	√	√	√	√	√	√	√	√
2. 관세율 및 법규차이	√	√	√	√	√	√	√	√	√	√
3. 환율변동	√	√	√	√		√	√	√	√	√
4. 외환통제		√		√	√	√				
5. 인플레이션	√	√	√				√	√	√	√
6. 자회사의 시장정보	√	√	√			√	√		√	
7. 국유화 및 몰수위험	√	√	√				√		√	
8. 이익·배당송금 제한			√		√		√		√	√
9. 현지국의 수입제한			√		√			√	√	√
10. 자회사의 적정현금흐름유지			√		√	√	√			√
11. 정부보조(수출보조금)		√								
12. 기업전체 이익극대화			√				√		√	√
13. 현지국과 우호적 관계유지			√				√		√	
14. 현지국의 정치적 안정	√			√				√	√	
15. 반덤핑 법규			√			√	√	√		√
16. 반트러스트 법규			√					√		
17. 합작투자 비율				√	√					
18. 합작상대방과의 이해관계			√				√	√		√
19. 자회사의 업적측정			√				√	√	√	
20. 상품 등의 거래규모			√				√	√	√	
21. 현지국의 시장조건						√		√	√	
22. 자회사의 합리적 이윤						√	√			
23. 자회사의 재무개선		√								
24. 로얄티·수수료에 대한 제한			√							
25. 현지국의 경제조건	√					√				
26. 현지국의 재무보고 요구사항			√				√	√		
27. 가격규제법규						√		√		
28. 투자본국의 소득세						√	√			
29. 합작투자 제약							√			
30. 자국정부의 수출유인						√				
31. 모회사의 자금사정					√					√
32. 현지의 자금조달 필요			√							√

註 1) 1) Shulman(1967)

2) Arpan(1972)

3) Tang(1979)

4) Wu and Sharp(1979)

5) Kim and Miller(1979)

6) Burns(1980)

7) Salem(1986)

8) Al-Eryani, Pervaiz and Akhter(1990)

9) 박경열(1990)

10) 이인재(1992)

註 2) 박경열, "국제이전가격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0, p.60을 참조하여 수정하였음.

의 소득세나 관세의 차이 등을 포함한다. 그 중 다국적기업 주재국의 세무적 규제는 다국적기업의 관계회사간 국제이전가격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다국적기업은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지법인에게 중간재 상품을 낮은 가격으로 조작하여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재국의 과세당국은 다국적기업의 현지법인이 국제이전가격조작을 예방하기 위해 세법규정의 강화, 세무조사 그리고 시정명령 등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다국적기업이 시가기준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할 경우 국제이전가격결정의 조작으로 인한 비난과 세무적 복잡성과 현지국과의 갈등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은 세무적 요인의 영향이 작을수록 비시가기준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이 설정되었다.

〈가설 1〉 세무적 요인의 영향(규제)이 작은 다국적기업일수록, 국제이전가격을 비시가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3.1.2 다국적기업의 경제적 요인 가설

다국적기업의 경제적 요인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경제적 요인에 관한 것으로 인플레이션, 환율변동, 반덤핑 법규, 현지국의 경제조건, 반트러스트 법규, 외환통제 그리고 로얄티·수수료에 대한 제한 등을 포함한다.

다국적기업이 비시가기준 이전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하려는 유인(incentives)은 정부규제 등에 의해 발생하는 시장 불완전성(market imperfection)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불완전성은 환율통제,

가격통제, 수입제한, 수입할당제 및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즉, 환율통제는 본국 모기업이 현지법인으로부터 이윤을 송환토록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가격통제는 시장메커니즘원리에 의해 국제이전가격을 결정한 것을 방해하고, 주재국(host country)에서의 수입제한은 인위적인 가격상승을 가져오고 또한 인플레이션은 실질이익(real profit)을 경감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제약요인들로 인해 다국적기업들은 비시가기준을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주재국의 인플레이션이 다국적기업의 모기업 소재국보다 더 높을 경우,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실질이익이 유지되도록 국제이전가격을 시가보다 높게 책정하고자 할 것이다. 즉, 다국적기업은 비시가기준에 의한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하여 이러한 제한을 피할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러므로 다국적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약이 더 엄격할수록, 이익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다국적기업은 국제이전가격을 조작하기 위해 비시가기준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가설이 설정되었다.

〈가설 2〉 경제적 요인의 영향이 큰 다국적기업일수록, 국제이전가격을 비시가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3.1.3 다국적기업의 합작요인 가설

다국적기업의 합작요인은 기업고유의 여건들과 관련된 것으로 합작투자비용, 합작상대방과의 이해관계 그리고 합작투자 제약 등을 포함한다. 다국적기업의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를 합작투자로 했을

경우 현지법인에 대한 의사결정은 그 합작비율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즉, 다국적기업의 합작투자비율이 높을 경우 현지 자회사에 대한 경영의사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결정방법 선택 시 임의성 즉, 조작성이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합작요인이 다국적기업의 관계회사간 국제이전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즉, 다국적기업에서 합작요인이 큰 영향을 미칠수록 다국적기업은 국제이전가격조작을 통한 이익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비시가기준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가설이 설정되었다.

〈가설 3〉 합작요인의 영향이 큰 다국적기업일수록, 국제이전가격을 비시가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3.1.4 다국적기업의 정치·사회적 요인 가설

다국적기업의 정치·사회적 요인은 현지국의 정치적 안정, 국유화 또는 몰수위험, 이익·배당금 송금의 제한, 자국정부의 수출유인 그리고 정부보조(수출보조금)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치적 요인⁴⁾과 사회적 요인⁵⁾은 다국적기업들이 국제이전가격조작을 실행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Shulman(1967)은 불안정한 정치적 환경하에 있는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국제이전가격결정에 있어서 현지국의 정치적·사회적 환경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불안정한 정치·사회적 환경하에 있는 다국적기업들은 정치적, 사회적 불확실성을 호기로 삼아 비시가기준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이익극대화를 도모하려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가설이 설정되었다.

〈가설 4〉 정치·사회적 요인의 영향이 큰 다국적기업일수록, 국제이전가격을 비시가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3.1.5 다국적기업의 규모⁶⁾ 가설

대기업의 이전가격결정방법에 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대기업은 사내 거래를 위해 상이한 가격결정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연구인 Robbins와 Stobaugh (1973)의 연구에서는 '대기업들은 변함없는 동일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표준가산율(standard markup)을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Arpan (1972-1973)은 '모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그 기업은 비용중심의 가격결정 체계를 사용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초기의 연구들과는 대조적으로 최근의 연구들은 대기업들은 시가기준 이전가격결정전략을 사용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Yunker (1982)는 '대기업들은 환경적 변화가능성과 전세

4) 예를 들면 토지나 재산의 몰수, 국유화, 내전 및 정치적 혼란 등이 있다.

5) 예를 들면 계급투쟁, 종교간의 마찰 등이 있다.

6) 본 연구에서는 다국적기업의 경영특성을 감안하여 현지법인의 매출액을 기업의 규모로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기업규모의 대용치로서 자산규모나 자본규모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국제이전가격이 본질적으로 국제간의 거래 행위 그 자체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의하면 연간매출액이 100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접대비의 한도액범위를 달리하고 있다는데 착안하여 기준을 설정하였다.

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 등으로 인해 시가기준 이전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대기업들은 그들의 규모를 정부당국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시가기준 이전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Benvignati(1985)의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비시가 기준 이전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이 설정되었다.

〈가설 5〉 기업규모가 작은 다국적기업일수록, 국제이전가격을 비시가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3.1.6 다국적기업의 내부요인 가설

다국적기업의 내부요인은 기업고유의 여건들과 관련된 것으로 모회사의 자금사정, 자회사의 합리적 이윤, 자회사의 시장확보, 자회사의 적정현금흐름유지, 기업전체의 이익극대화 및 자회사의 업적 측정 등을 포함한다. 다국적기업은 모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 비시가기준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을 선택하여 국제이전가격 선택에 임의성을 부여함으로써 즉, 가격조작을 통한 자금 확보를 꾀하려 할 수도 있다. 또한 현지 자회사가 요구되는 일정수준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다국적기업은 현지 자회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제이전가격을 낮게 책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내부의 요인이 다국적기업의 관계회사간 이전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기업내 경제변수의 영향에 대한

부호(sign)의 방향은 현지국의 관습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일부 다국적기업들은 해외현지법인의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낮은 국제이전가격을 책정하고자 비시가기준을 사용하는 반면, 다른 다국적기업들은 해외현지법인의 업적측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시가기준을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으로 채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내부요인은 통제변수로서 다음과 같은 가설이 설정되었다.

〈가설 6〉 다국적기업이 국제이전가격을 비시가로 결정할 가능성은 내부요인의 영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3.1.7 다국적기업의 모기업소재국 가설

기업의 모기업소재국에 따라 국제이전가격결정은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소속국에 따른 환경요인의 차이를 기업이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반영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모기업 소재국⁷⁾이 어디냐에 따라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이 달라진다면, 다국적기업은 국제이전가격을 결정할 때 국가간 환경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이 설정되었다.

〈가설 7〉 다국적기업의 모기업소재국이 어디냐에 따라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은 다를 것이다.

7) 모기업 소재국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에 진출한 해외기업의 本國의 數와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現地國家의 數에 대한 비중을 고려하여 미국, 일본, 유럽 및 한국 등 4개 국가군으로 분류하였다.

3.2 자료수집 및 표본선정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방법(questionnaire survey)⁸⁾을 사용하였으며 표본선정에 있어서는 표본대상기업은 제한적으로나마 랜덤화(randomization)를 도모하는 비율층화 표본추출방법(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에 의하여 추출하였다. 즉, <표 3-1>에서 나타난 것처럼 1994년 7월 1일 현재 해외에 진출한

내국법인 2,285개 기업들과 1995년 1월 1일 국내 진출한 외국법인 2,660개 기업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그 해당법인의 모기업소속국 비율에 따라 표본수를 층화시켜 할당시켰다. 따라서 한국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중에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그리고 프랑스 등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300개 기업들과 한국에 진출하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그리고 프랑스 등 300개 기업들이 설문조사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다.⁹⁾

<표 3-1> 현재 국내진출 외국기업 수(95.1.1)와 현재 해외진출 내국기업 수(94.7.1)

구 분	국내진출 외국기업			해외진출 내국기업		
	외투법인	외국법인 (사무소포함)	소 계	현지법인	지점법인 (사무소포함)	소 계
미 국	538	342	880	576	659	1,235
일 본	1,023	405	1,428	137	624	761
영 국	46	64	110	35	63	98
독 일	99	50	149	52	90	142
프랑스	45	48	93	17	32	49
계	1,751	909	2,660	817	1,468	2,285

<표 3-2> 설문지 배부 및 회수현황

모기업 소재국가	설문지배부	설문지 회수	회 수 율	이용가능한 설문지 수	이용가능률
계	600부	180부	30.0%	141부	23.5%
미 국	90부	49부	54.4%	36부	40.0%
일 본	100부	25부	25.0%	15부	15.0%
영 국	30부	6부	20.0%	4부	13.3%
프 랑 스	30부	5부	16.7%	3부	10.0%
독 일	50부	15부	30.0%	9부	18.0%
한 국	300부	80부	26.7%	64부	21.3%

- 8) 연구조사에서 설문지를 이용하는 경우, 연구의 결과는 설문지 설계내용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설계에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Szilagyi(1987) 등의 기준에 유의하여 각 항목을 검토하고, 연구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절한 수정을 가하였다.
- 9) 1995년 1월 1일 현재 국내진출 외국기업 수(2,660개)와 1994년 7월 1일 현재 해외진출 내국기업(2,285개)의 수를 비슷하게 보아 50:50 비율로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표본에 포함되는 국내진출 외국기업 수를 다시 미국(880개), 일본(1,482개), 유럽(352개) 등의 비율에 맞추어 층화할당하여 표본 수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설문대상자는 국제조세업무의 복잡성과 특이성을 고려하여 기업체의 해외사업부에 속해 있는 과장급 이상의 담당자로 하고, 그 담당자들에게 1995년 8월에 1차로 600부의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회수율이 7.83%(47부)에 불과하여 2차로 서울시내에 소재한 대학의 회계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생 20명을 면접조사원으로 활용, 미회수된 553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3-2〉와 같이 설문지는 총 600부중에서 180부가 회수되어 30%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하여 분석에 부적합한 39부를 제거하였고, 그 나머지인 141부의 설문지가 최종적으로 분석대상 설문지로 사용되었다. 〈표 3-3〉은 표본대상 다국적기업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연구대상인 다국적기업의 업종은 대부분이 제조·도매업종이었고(85%), 현지법인의 연간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현지법인은 표본의 63%를 점하였다.

최종적으로 작성된 설문지는 다음과 같이 크게 2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번째 부분은 기업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 설문대상기업의 주요업종, 모기업 소속국, 해

외현지법인의 매출액, 거래 개시년도, 다국적기업 수출입액 중에서 해외현지법인이 차지하는 비중, 해외에 진출한 동기, 국제이전가격결정의 주체와 총책임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주어진 복수의 항목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기업의 국제이전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에 관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선행 연구를 이용하여 도출된 국제이전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들의 측정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이 국제이전가격결정에 미치는 정도에 대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를 1점으로, '보통'은 3점, '매우 중요하다'를 5점으로 평가하게 하였다.

〈표 3-3〉 표본 대상의 특성

구 분		기 업 수	구성비(%)
업 종	제 조 업	84	60.0
	도 매 업	35	25.0
	기 타*	21	15.0
현지법인의 매출액	10 억 미 만	10	7.3
	10억이상~100억미만	40	29.2
	100억이상~300억미만	32	23.4
	300억이상~500억미만	16	11.7
	500억이상~1,000억미만	14	10.2
	1,000 억 이 상	25	18.2
총수출입액 중 현지법인이 차지하는 비중	10 % 미 만	57	42.9
	10%이상 ~ 30%미만	33	24.8
	30%이상 ~ 50%미만	16	12.0
	50%이상 ~ 70%미만	11	8.3
	70%이상 ~ 90%미만	11	8.3
	100 %	5	3.8

3.3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요인분석(factor analysis)¹⁰⁾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선행 연구에서 도출된 국제이전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32개의 환경요인에 대해 자료의 복잡성을 줄이고, 요인을 몇 개의 차원으로 묶어 중요하지 않는 것을 선별한 후 이에 대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분석에 이를 활용하기 위함이다.

첫번째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method)을 사용하여 환경변수들과 요인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주는 최초요인행렬(initial unrotated factor matrix)을 추출하였다.

두번째로, 추출된 최초요인행렬로부터 적합한 요인들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최소아이겐값(Mineigen) 기준과 스크리테스트(scree test) 등을 활용하였다.

세번째로, 요인과 변수와의 관계를 좀더 용이하게 해석하기 위해 요인공간을 직각회전방식의 한 방법인 Varimax방법으로 회전시켜 각 변수들이 어떠한 요인과 관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회전된 결과를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와 아이템-투 상관관계분석(item-to-correlation)으로 한 번 거른 후 구체적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국제이전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개

발단계에서는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한 패널토의를 거쳐 결정된 32개의 기업내외부 환경요인들에 대한 설문지 회수결과를 가지고 요인분석을 하였다. 이 때 요인 수의 결정은 아이겐 값에 대한 스크리 테스트(Scree plot)를 참조하여 1이상의 아이겐 값을 갖는 요인 수에서 급격히 하락하는 값을 가지는 요인 수로 결정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척도를 정리하는 단계에서는 최초요인행렬을 추출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주성분분석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초의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가능한 최소의 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지 주성분분석에만 의존할 경우 일반적으로 특별히 의미있는 구조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처럼 본 연구에서도 요인행렬(factor matrix)¹¹⁾을 회전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3.4 프로빗분석 및 변수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국제이전가격결정에 있어서 어떤 다국적기업이 비시가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프로빗분석(probit model)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입한 프로빗분석¹²⁾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요인분석 결과 확정된 5개 요인

10) 이 방법은 여러 개의 변수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분석하여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공동요인(내재적 차원)을 이용하여 설명하는 多變量分析技法이다. 즉, 요인분석은 변수를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 분리하지 않고 변수 전체를 대상으로 어떤 변수들끼리 서로 같은 분산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요인으로 분류하는 상호의존적 분석기법(interdependent method) 중 하나이다.

11) 요인간 회전방식(rotation)의 주요형태는 직각(orthogonal)과 사각(oblique)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직각회전의 한 형태인 Varimax회전방식을 택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유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사각회전의 한 형태인 Promax회전을 추가적으로 하여 보았으나 같은 결과가 나왔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Varimax회전방식을 이용하여 도출된 내용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12) 프로빗분석은 반응변수로 선정된 변수가 두 개 이상의 범주로 이루어진 빈도자료를 가질 때 쓰이는 조건부확률모형으로 로짓분석(logit analysis), 로지스틱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등과 함께 "可否反應分析(quantal response analysis)"이라고 부른다(박광배, 1992). (다음페이지 계속 이어짐)

차원들¹³⁾ 이외에 기업규모(size)와 모기업의 소재국 등 7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기업이 사용한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을 반응변수로 하여 다음과 같이 다국적기업의 환경요인들이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설정하였다.

$$\begin{aligned}
 \text{TPM} &= \beta_0 + \beta_1\text{MF1} + \beta_2\text{MF2} \\
 (\text{예측부호}) & \quad (-) \quad (+) \\
 &+ \beta_3\text{MF3} + \beta_4\text{MF4} + \beta_5\text{MF5} \\
 & \quad (+) \quad (+) \quad (?) \\
 &+ \beta_6 \text{Size} + \beta_7 \text{MCD1} \\
 & \quad (+) \\
 &+ \beta_8 \text{MCD2} + \beta_9 \text{MCD3}
 \end{aligned}$$

여기에서, TPM =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transfer pricing method)으로 만약 시가기준이면 '0', 비시가기준이면 '1'의 값을 가짐.

- MF1 = 세무적요인¹⁷⁾
- MF2 = 경제적요인¹⁷⁾
- MF3 = 합작요인¹⁷⁾
- F4 = 정치·사회적 요인¹⁷⁾
- MF5 = 기업의 내부요인¹⁴⁾
- Size = 기업규모¹⁵⁾
- 만약 기업규모가 작으면(현지법인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Size=1
 기업규모가 크면(현지법인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Size=0

MCD1, MCD2, MCD3= 현지기업 모기업의 소재국에 대한 가변수(dummy variable)
 만약 모기업소재국이 미국이면 MCD1=1, MCD2=0, MCD3=0
 모기업소재국이 일본이면 MCD1=0, MCD2=1, MCD3=0
 모기업소재국이 유럽이면 MCD1=0, MCD2=0, MCD3=1
 모기업소재국이 한국이면 MCD1=-1, MCD2=-1, MCD3=-1

본 연구의 프로빗분석에 사용된 반응변수(TPM)의 값으로는 시가기준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과 비시가기준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의 2가지 방법이 사용되었다.¹⁶⁾ <표 3-4>와 같이 국제이전가격결정의 반응변수인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을 시가기준과 비시가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시가기준은 30.8%(응답빈도 113)를 그리고 비시가기준은 69.2%(응답빈도 254)를 보이고 있다. 비시가기준으로는 표준단위당전부원가 플러스 이윤, 협의가격, 실제단위당 전부원가 플러스 이윤, 표준단위당 전부

프로빗분석은 로짓분석보다 다소 복잡하고 반응변수에 대한 누적적인 정규분포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로짓은 가능성대비(odd ratio)의 개념이고, 프로빗은 임계치(tolerance)의 개념이란 해석차이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저항력의 누적정규분포의 가정이 현실과 크게 괴리되지 않는다면 프로빗분석은 독립변수에 대한 정규분포의 가정을 완화시켜 주면서 로짓분석에서는 산출되지 않는 각 독립변수 값의 크기에 따른 종속변수의 이론적 확률을 도출시킬 수 있는 통계기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국적기업의 국제이전가격결정의 조작가능성을 연계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可能性對比의 개념보다는 어느 臨界値를 넘어서는 순간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파악하여 프로빗분석을 도입하였다.

- 13) 본 연구의 프로빗분석에서 사용된 5개 요인변수는 각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값들의 평균치이다.
- 14) 환경요인들을 구성하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요인분석의 결과인 <표 4-1>을 참조한다.
- 15) 본 연구에서는 기업규모를 과세당국에서 연간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을 대기업으로 분류·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참조하여 현지법인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을 소기업(36.5%), 100억원 이상을 대기업(63.5%)으로 분류하였다.(<표 3-3> 참조)
- 16) 국제이전가격으로 시가기준을 사용하는 기업과 비시가기준을 사용하는 기업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다국적기업은 2개이상의 기준을 이용하여 국제이전가격결정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시가나 비시가나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비시가기준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료자체에 있어서 그러한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이고, 향후 연구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원가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분석대상기업이 실질적으로 141개 기업이나 응답빈도가 367이 된 것은 한 기업에서 두 가지 이상의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하고 있을 때, 이를 복수 응답하게 함으로써 빈도수가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 대부분은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의 선택시 시가기준 방법과 비시가기준 방법을 병용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두 방법 중 그 사용빈도가 더 높은 것을 채택하여 수치를 부여하였다. 즉, 시가기준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 범주와 비시가기준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들의 값

들을 합산하여, 응답한 다국적기업이 시가기준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을 더 많이 사용할 경우 '0'의 수치를 부여하고, 비시가기준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을 더 많이 사용할 경우 '1'의 수치를 부여하는 이분된 명목 반응변수(dichotomous dependent variable)를 가지도록 하였다.¹⁷⁾

즉, 본 연구에서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의 구분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에 의한 것으로 '0'의 값은 상대적으로 시가기준 국제이전가격을 더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고, '1'의 값은 상대적으로 비시가기준 국제이전가격을 더 많이 사용하

〈표 3-4〉 응답기업의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 사용빈도

이전 가격 결정 방법		계	
		빈도	백분율
비시가기준	실제 단위당 전부원가	18	5.0%
	실제 단위당 전부원가 + 이윤	39	10.7%
	실제 단위당 변동원가	11	3.0%
	실제 단위당 변동원가 + 이윤	17	4.7%
	표준 단위당 전부원가	32	8.8%
	표준 단위당 전부원가 + 이윤	53	14.5%
	표준 단위당 변동원가	7	1.9%
	표준 단위당 변동원가 + 이윤	19	5.2%
	한계원가(증분원가)	0	0.0%
	기회원가	0	0.0%
	협약가격	51	14.0%
	수리적 모형에 의한 최적가격	2	0.5%
	이원가격	3	0.8%
	비시가기준 합계		254
시가기준	시장가격에서 판매비 차감	65	17.6%
	시장가격	48	13.2%
	시가기준 합계		113
총 계		367	100.0%

17) 본 연구에서는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인 모형의 반응변수(TPM)를 결정할 때 Al-Eryani(1990)의 연구(p.417)에서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는 기업 즉, 국제이전가격조작가능성이 더 높은 기업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IV. 실증분석 결과

4.1 요인분석 결과

국제이전가격결정전략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업고유의 요인과 외부환경적 요인으로 개념화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를 위해 기존 연구들을 고려하여 추출된 32개 다국적기업 내외부의 환경 변수들에 대한 요인 차원을 개념화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수의 결정은 최소 아이젠 값(Mineigen)이 1 이상을 가지는 요인 중에서 스크리테스트(Scree plot)를 참조하여 5개의 요인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는데 여기에서 결정된 기업내외부의 환경 속성에 대한 5가지 요인에 대하여는 Varimax 회전을 통하여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과 누적비율(cumulative proportion)을 계산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5개 요인이 설명하는 총분산설명력(total variance explained)은 52.5%이다.

또한 측정항목의 타당성(validity)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요인적재량이 ± 0.5 이하의 값을 갖는 경우와 각 요인에 대해 아이템-투-토탈 상관관계(item-to-total correlation) 분석을 적용하여 해당 항목제거 시 요인 신뢰성계수 값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그 항목을 제거하였다. 따라서 총 32개 항목들 중 7개의 항목이 제거되어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25개 기업 내외부환경 속성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한편 실증적 연구를 통해 개발된 국제이전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내외부의 환경 속성과 요인별 속성들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크론바하 알파 계수(Cronbach's Alpha-coefficient)¹⁸⁾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표 4-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요인들은 0.67이상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도입한 측정척도는 구성 요인별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체항목에 대한 알파계수는 0.9092로 나타났고, 각 측정척도 항목별 신뢰도도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측정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성타당도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성타당도는 측정척도가 연구대상이 되는 개념(construct)을 측정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측정값의 분산이 해당개념의 변화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상관성을 나타내는지에 초점을 두고 여러 각도에서 타당도를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는 데 있어 필요불가결한 방법이 요인분석인데, <표 4-1>에 나타났듯이 모든 항목의 요인적재량이 0.5이상으로 본 연구의 측정척도는 의미있는 구성타당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프로빗분석 결과

프로빗분석 결과를 설정된 가설별로 검증한 결과,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로빗분석에 포함되

18)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신뢰성 분석의 개념인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에 관한 측정치로 하나의 개념에 대하여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를 이용할 경우 해당문항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반분신뢰도(split half reliability)를 구하고 이의 평균치를 산출한 계수를 의미한다. 크론바하 알파계수 값은 0과 1 사이에서 변하게 되는데 0.50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표 4-1) 국제이전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내외부 환경속성 요인분석 결과

요인 및 속성항목	요인적재량*	아이젠 값	비율	누적비율	신뢰성계수
기업의 내부요인					
31. 모회사의 자금사정	0.7799	8.8098	27.5%	27.5%	0.8409
30. 자회사의 합리적 이윤	0.7554				
24. 자회사의 시장확보	0.6986				
25. 자회사의 적정현금흐름유지	0.6815				
26. 기업전체의 이익극대화	0.6396				
28. 자회사의 업적측정	0.6180				
29. 상품 등의 거래규모	0.6088				
경제적 요인					
5. 인플레이션	0.7643	2.5526	8.0%	35.5%	0.8015
3. 환율변동	0.7059				
19. 반덤핑 법규	0.5795				
9. 현지국의 경제조건	0.5628				
27. 반트러스트 법규	0.5464				
4. 외환통제	0.5344				
20. 로얄티·수수료에 대한 제한	0.5005				
합작 요인					
8. 합작상대방과의 이해관계	0.7934	2.1412	6.7%	42.2%	0.8181
7. 합작투자비용	0.7632				
11. 합작투자 제약	0.7505				
정치·사회적 요인					
18. 현지국의 정치적 안정	0.5981	1.7210	5.4%	47.6%	0.6722
13. 국유화 또는 몰수위험	0.5946				
14. 이익·배당금 송금의 제한	0.5607				
23. 자국정부의 수출요인	0.5113				
16. 정부보조(수출보조금)	0.5034				
세무적 요인					
1. 법인세율 및 법규상의 차이	0.7312	1.5603	4.9%	52.5%	0.7430
10. 투자본국의 소득세	0.6998				
2. 관세율 및 법규차이	0.6740				

* :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s)이 ±0.5 이상일 경우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Hair, et al(1979) p.234).

〈표 4-2〉 모형 분석 결과

$$(TPM = \beta_0 + \beta_1 MF1 + \beta_2 MF2 + \beta_3 MF3 + \beta_4 MF4 + \beta_5 MF5 + \beta_6 \text{Size} + \beta_7 \text{MCD1} + \beta_8 \text{MCD2} + \beta_9 \text{MCD3})$$

변 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χ^2	p-값	예측부호방향
절 편 (Intercept)	1.1197588	0.986231	1.289116	0.2562	
세 무 적 요 인 (MF1)	- 0.8447676	0.212058	15.869580	0.0001**	-
경 제 적 요 인 (MF2)	0.0917719	0.285155	0.103575	0.7476	+
합 작 요 인 (MF3)	0.0182096	0.174965	0.010832	0.9171	+
정 치·사 회 적 요 인 (MF4)	0.0575192	0.247431	0.054040	0.8162	+
기 업 내 부 요 인 (MF5)	- 0.0753175	0.230886	0.106413	0.7443	?
기 업 규 모 (Size)	0.7680375	0.390648	3.865399	0.0493 *	+
모기업소재국 가변수1 (MCD1)	1.1275108	0.408387	7.622521	0.0058 **	
모기업소재국 가변수2 (MCD2)	0.9090305	0.559797	2.636910	0.1044	
모기업소재국 가변수3 (MCD3)	1.7278202	0.569538	9.203462	0.0024 **	

주 1) * p < 0.05 ** p < 0.01

2) 변수정의는 〈표 4-1〉에서 정의되었음.

는 7개의 변수들 중에서 세무적 요인(MF1)은 chi-square값이 15.869580으로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기업규모(Size)요인은 3.865399로 0.0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그리고 모기업소재국 가변수 MCD1과 MCD3의 chi-square값이 각각 7.622521과 9.203462로서 모두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만, 모기업소재국 가변수 MCD2는 chi-square값이 2.636910으로서 0.10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다른 변수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국제이전가격을 결정할 때 세무적 환경, 기업규모 등 2개 변수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또한 모기업소재국이 어디냐에 따라서 상이한 방법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그 이외의 기타 다른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못했으나 그 관계의 방향에서는 가설에서 예측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출된 모형이 적합한지 피어슨 카이제곱값(Pearson's chi-square value) 과 우도비 카이제곱값(likelihood ratio chi-square)을 가지고 모형의 합치도 검정을 한 결과,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106.94와 107.4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의미가 없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국제이전가격결정을 예측하는 프로빗분석모형은 실제 조사된 자료를 비교적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카이제곱값 대 자유도 비율이 거의 1에 가까우므로(106.94/104 또는 107.43/104)

〈표 4-3〉 프로빗분석의 합치도 분석 결과

통계(Statistic)	값(value)	자유도(df)	Prob > Chi-Sq
피어슨 카이자승	106.9411	104	0.4020
우도비 카이자승	107.4377	104	0.3890

〈표 4-4〉 프로빗분석의 국제이전가격결정 예측력

구 분	정확히 예측된 기업수	잘못 예측된 기업수	총기업수
시가 기준 기업	26 (68.4%)	12 (31.6%)	38 (100.0%)
비시가기준기업	49 (64.5%)	27 (35.5%)	76 (100.0%)
총 계	75 (65.8%)	39 (34.2%)	114 (100.0%)

〈표 4-5〉 프로빗분석에 대한 추가적 분석결과

변 수	모형1 ^{a)}		모형2 ^{b)}		모형3 ^{c)}		예측부호방향
	부호	p-값	부호	p-값	부호	p-값	
절 편 (Intercept)		0.2562		0.0036		0.0215	
세 무 적 요 인 (MF1)	-	0.0001**	-	0.0001**	-	0.0001**	-
경 제 적 요 인 (MF2)		0.7476	-	0.4420			+
합 작 요 인 (MF3)		0.9171	-	0.9915			+
정 치 · 사 회 적 요 인 (MF4)		0.8162		0.7234			+
기 업 내 부 요 인 (MF5)	-	0.7443	-	0.9487			?
기 업 규 모 (Size)		0.0493*		0.7182		0.0623	+
모기업소재국 가변수1 (MCD1)		0.0058**				0.0105*	
모기업소재국 가변수2 (MCD2)		0.1044				0.3422	
모기업소재국 가변수3 (MCD3)		0.0024				0.0025**	

註 1) * p<0.05 ** p<0.01

2) 변수정의는 〈표 4-1〉에서 정의되었음.

- 3) 모형의 정의 - a): 모든 예측변수들이 포함된 프로빗분석의 분석 결과
 b): 모기업소재국 변수를 제거한 프로빗분석의 분석 결과
 c): 유의적인 변수만을 포함한 프로빗분석의 분석 결과

조사된 자료의 거의 대부분이 모형에 의해 설명된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도출된 프로빗분석의 합치도라고 할 수 있다.¹⁹⁾ 이러한 결과들로 종합해 보면 는 대단히 좋다고 할 수 있다.

19) 모형이 옳다는 가정하에서는 카이자승의 기대치와 자유도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결정의 예측력을 검증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결정 예측력을 구분하는 판별기준점은 프로빗 값(p) "0"으로 하였다. 따라서 그 값이 0보다 클 때에는 비시가기준 이전가격결정방법을, 0보다 작을 때에는 시가기준 이전가격결정방법을 예측하였다. 그 결과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가기준에 의한 이전가격결정방법인 경우에는 예측정확도(predictive accuracy)가 68.4%, 비시가기준에 의한 이전가격결정방법인 경우에는 64.5%로 전체적으로 65.8%의 예측정확도를 보였다.²⁰⁾

한편 <표 4-5>는 모든 예측변수들을 분석에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모형1)를 모기업소재국 변수를 제거한 후 프로빗분석을 수행한 결과(모형2)와 유의적인 변수만을 포함한 프로빗분석의 분석결과(모형3)를 비교하였다. 특히, 모기업소재국 변수를 제거한 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무적요인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규모 변수가 국제이전가격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또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모기업소재국, 기업규모 및 세무적요인 등을 예측변수로 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프로빗분석에 포함된 3개 변수들 중 세무적요인과 모기업소재국이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규모는 실질적으로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4.3 가설검증

4.3.1 가설 1에 대한 검증 : 다국적기업의 세무적 요인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무적 요인에 부하(loading)된 변수항목들²¹⁾은 법인세율 및 법규상의 차이, 투자본국의 소득세 그리고 관세율 및 법규차이 등이었으며, 그 변수항목들의 요인부하량은 0.67에서 0.73에 이르기까지 높은 강도를 보였다.

더욱이 <표 4-2>에서, 다국적기업의 세무적 요인 변수는 가설설정에서 예측했던 바와 같이 부(-)의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해서 통계적인 확신을 갖고 주장을 할 수 있게끔 통계적으로 유의적(p<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은 그들의 주재국은 물론이고 모기업소재국의 법규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가기준 국제이전가격결정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인재(1992)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다국적기업은 비시가기준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하면 세무조사, 조세회피규제방안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세무적 규제들이 부과되기 때문에 비시가기준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4.3.2 가설 2에 대한 검증 : 다국적기업의 경제적 요인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국적기업의 경

20) 본 연구에서 도출된 프로빗분석의 이전가격결정 예측력에 있어, 제1종오류(시가기준을 사용한 다국적기업을 비시가기준을 사용한 다국적기업으로 예측한 오류)는 31.6%이고 제2종오류(비시가기준을 사용한 다국적기업을 시가기준을 사용한 다국적기업으로 예측한 오류)는 35.5%이며 총오류는 34.2%였다.

21) 표에서 나타난 부하된 변수항목의 요인부하치는 내림차순으로 정리된 것이다.

제적 요인에 부하된 변수항목들은 인플레이션, 환율변동, 반덤핑 법규, 현지국의 경제조건, 반트러스트 법규, 외환통제 그리고 로얄티·수수료에 대한 제한 등이었으며, 그 변수항목들의 요인부하량은 0.50에서 0.76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높은 강도를 보였다.

다국적기업의 경제적 요인에 대해서는 가설설정에서 예측했던 방향과 동일한 정(+)의 계수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변수 역시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 참조). 따라서 다국적기업은 현지국의 경제적 제약요인이 강할 경우에는 비시가기준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Burns(1980)의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4.3.3 가설 3에 대한 검증 : 다국적기업의 합작 요인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국적기업의 합작 요인에 부하된 변수항목들은 합작상대방과의 이해관계, 합작투자비용 그리고 합작투자 제약 등이었으며, 그 변수항목들의 요인부하량은 0.75에서 0.79에 이르기까지 높은 강도를 보였다.

〈표 4-2〉에서와 같이 다국적기업의 합작요인 변수에 대해서는 가설 설정에서 예측했던 방향과 동일한 정(+)의 계수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변수 역시 통계적이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은 합작 요인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시가기준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그 주장 역시 통계적인 확신을 가질 수는 없다. 하지만 Salem(1986)의 연구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의 합작 요인은 국제이전가격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4 가설 4에 대한 검증 : 다국적기업의 정치·사회적 요인

다국적기업의 정치·사회적 요인에 부하된 변수항목들은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지국의 정치적 안정, 국유화 또는 몰수위험, 이익·배당금 송금의 제한, 자국정부의 수출요인 그리고 정부보조(수출보조금) 등이었으며, 그 변수항목들의 요인부하량은 0.50에서 0.60에 이르러 보통의 강도를 보였다.

〈표 4-2〉에서와 같이 다국적기업의 정치·사회적 요인 변수에 대해서도 가설설정에서 예측했던 방향과 동일한 정(+)의 계수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변수 역시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검증 결과는 Shulman(1967)과 Kim과 Miller(1979)의 '정치·사회적 환경요인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통계적인 확신을 주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불안정한 정치·사회적 환경 하에 있는 다국적기업들은 정치·사회적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비시가기준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을 채택하려고 하나, 그 주장 역시 통계적인 확신을 가질 수는 없다.

4.3.5 가설 5에 대한 검증 : 다국적기업의 규모

〈표 4-2〉에서 다국적기업의 규모 변수도 가설설정에서 예측했던 바와 같이 국제이전가격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따라서 기업규모가 클수록 시가기준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비시가기준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Arpan(1972-1973)의 연구, Robbins와 Stobaugh(1973)의 연구 그리고 Al-Eryani(199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기업은 세계시장을 상대로 매출실적을 올리고, 또한 다국적기업이 처한 환경은 언제든지 변동가능하기 때문에 시가기준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한다'는 Yunker(1982)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눈에 잘 드러나기 때문에 시가기준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한다'는 Benignati(1985)의 주장도 뒷받침하고 있다

4.3.6 가설 6에 대한 검증 : 다국적기업의 내부 요인

다국적기업의 내부요인에 부하된 변수항목들은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회사의 자금사정, 자회사의 합리적 이윤, 자회사의 시장확보, 자회사의 적정 현금흐름 유지, 기업전체의 이익극대화, 자회사의 업적측정 그리고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규모 등이었으며, 그 변수항목들의 요인부하량은 0.61에서 0.78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높은 강도를 보였다.

본 장의 앞부분 가설설정에서 다국적기업의 내부요인은 국제이전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지만 그 영향의 방향(sign)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다국적기업 내부요인의 영향에 대한 부호의 방향은 상응하는 관습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검증 결과도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의 내부요인의 모형 계수 값은 부(-)의 방향으로 나왔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은 해외현지법인의 업적평가를 위해 시가기준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한다는 주장을 할 수 없으며, 아울러 해외현지법인의 시장

점유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비시가기준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한다는 주장도 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Burns(1980)와 Yunker(1982)의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내용으로 다국적기업은 자체 개발한 방법을 이용하여 국제이전가격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4.3.7 가설 7에 대한 검증 : 모기업 소재국

모기업 소재국에 대해서는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국적기업의 모기업 소재국이 어디냐에 따라 국제이전가격결정을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Al-Eryani(1990)의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즉, 유럽이 가장 비시가기준 이전가격결정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미국, 일본, 한국 순으로 비시가기준 이전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국제이전가격결정을 이용하여 조세대응을 하고자 할 때, 상이한 국가간의 환경 차이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그것을 반영하여 국제이전가격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V. 결 론

다국적기업은 해외 현지법인의 업적(performance)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현지법인에 대한 통제 및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간의 정치·사회적 차이, 세무적 규제, 수출입 규제 그리고 자금 이전에 대한 통제 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경영 활동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은 국내에서만 영업활동을 하는 내국기업에 비해 매우 복잡

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국적기업은 국제이전가격결정전략의 선택 시 해외현지법인의 경영활동을 적정하게 보상함과 동시에 모기업 소재국과 현지국의 다양한 법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기업의 이익극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양면성을 고려하여 최적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다국적기업간에 목표일치성을 달성할지는 모르나 결정된 이전가격이 시가보다 낮을 때 이전가격조작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불가피하게 국가간 조세마찰을 야기 시킬 수 있다.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에는 시가기준과 비시가기준이 있다. 시가는 제품을 제조한 기업이 외부시장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판매할 경우 형성되는 판매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만약 다국적기업이 비시가기준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을 선택할 경우 시가기준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국제이전가격을 조작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시가기준에 의하여 국제이전가격을 결정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설정된 32개의 항목들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행하여 도출된 5개 요인차원과 표본대상기업인 모기업소재국, 기업의 규모 등 2개 변수를 모형에 추가하여 프로빗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예측변수들을 분석에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모형1) 모기업소재국, 기업규모 및 세무적요인 등이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모기업소재국 변수를 제거한 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무적요인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모기업소재국, 기업규모 및 세무적요인 등을 예

측변수로 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프로빗분석에 포함된 3개 변수들 중 세무적요인과 모기업소재국이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 바 기업규모는 실질적으로 이전가격결정방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세무적 요인과 기업규모는 국제이전가격결정의 선택가능성과 유의적인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율의 차이, 관세율과 법규의 차이, 투자본국의 소득세 등의 세무적 규제사항들이 시가기준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하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환율변동, 외환통제 그리고 반덤핑 법규 등과 같은 경제적 제약, 정치적 안정, 국유화, 송금의 제한 그리고 정부보조 등과 같은 정치·사회적 요인, 합작투자비율과 제약같은 합작요인 등은 국제이전가격결정에 중요하지 않거나 영향을 미치지라고 부수적인 결정요소로 고려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Arpan (1972-1973)의 '국제이전가격결정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정할 만한 최적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일맥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업 내부요인 중에는 업적측정요인이 포함되는데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업적평가와 비시가기준 국제이전가격결정간에는 유의적인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Yunker(1982)의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내용으로 다국적기업은 업적평가정책을 사용한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과는 관계없이 자체적인 체계를 갖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셋째, 국제이전가격결정은 모기업 소재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

는 이전가격결정의 경제이론(the economic theory of transfer pricing)에 대해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현행 시장에서 완전경쟁시장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대다수 다국적기업들이 비시가기준 국제이전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넷째, 해외진출 다국적기업의 실무자가 국제이전가격결정 전략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결정적인 변수(critical variables)를 규명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²²⁾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규모와 모기업소재국 등의 추가적인 변수를 국제이전가격결정모형에 도입함으로써 국가간 비교와 기업규모간 차이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표본대상기업의 수가 충분할 정도로 확보되지 않아 일반화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둘째, 기업규모를 구분함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한국의 기준만을 적용하였기에 해석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모기업소재국을 임의대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는 점에서도 해석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프로빗 모형의 예측정확도를 평가할 때, 프로빗 모형 도출에 사용하였던 표본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모형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 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표본을 2개의 부분표본(sub-sample) 즉, 분석표본과 검증표본으로 구분함으로써 연구모형의 결과가 편의 없는 일반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나 영·이양현(1995), "강제적 회계기준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적용시기가 미칠 수 있는 기업들의 특징 변수; FASB No.106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한국회계학회, 189-242.
- 박경열(1990), "국제이전가격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광배(1992), 빈도분석, 서울, 성원사.
- 손창남(1989),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국제대체가격결정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인재(1992), "국제이전가격의 환경요인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현삼원(1991), "한국의 이전가격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bdel-khalik, A.R. and E.J. Lusk(1974), "Transfer Pricing-A Synthesis", *Accounting Review*, 8-23.
- Akelsberg, R. and G. Yukl(1979), "Negotiated transfer pricing and conflict resolution in organization", *Decision Sciences*, 387-398.
- Al-Eryani, M.F., A. Pervaiz and S.H. Akhter(1990), "Transfer Pricing Determinants of U.S. Multinationals",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21 3rd Quarter, 409-425.
- Arpan, J.S.(1972), *International Intracorporate Pricing, Non-American Systems and Views*, Praeger.
- _____ (1972-1973), "Multinational Firm Pricing in International Markets", *Sloan Management Review*.
- Baumol, W.J. and T. Fabian(1964), "Decomposition, Pricing for Decentralization and External

22) 본 연구에서는 업종간 차이와 제품유형간 차이의 존재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하였다.

- Economics”, *Management Science*, 1-32.
- Benvignati, A.M.(1985),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by U.S. manufacturing firms*, In A. M. Rugman & L. Eden, eds., *Multinationals and transfer pricing*, New York, St Martin’s Press.
- Business International Corporation(BIC)(1965), *Solving International Pricing Problems*, New York.
- Burns, J.O.(1980), “Transfer Pricing Decision of U.S. Multinational Corpor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3-29.
- Greene, J. and M.G. Duerr(1970), *Intercompany Transactions in the Multinational Firm*, New York, Conference Board.
- Hair, J.F., R.E. Anderson, R.L. Tathan and B.J. Grabrowsky(1979), *Multivariate data analysis*, Tulsa, OK, PPC Company.
- Hirshleifer, J.(1956), “On the Economics of Transfer Pricing”, *The Journal of Business*, 172-184.
- Kim, S.H. and S.W. Miller(1979), “Constituents of the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Decision,”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69-77.
- Lecraw, D.J.(1985), *Some evidence on transfer pricing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A.M. Rugman and L. Eden, eds., *Multinationals and transfer pricing*, New York, St Martin’s Press.
- Robbins, S.M. and R.B. Stobaugh(1973), *Money in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A Study of Financial Policy, New York, Basic Books Inc..
- Salem, Aziza Abel-Razix Ahmed(1986), “A Study of Determinants of Transfer Pricing in Multinational Corporate, The Case between U.S. Parents and the Egyptian Units”,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ississippi.
- Shillinglaw, G.(1983), *Divisional Reporting and Transfer Pricing*, edited by James Bulloch: Donal E. Keller and Loui Vlasho, Accountants’ Cost Handbook, Ronald Press.
- Shulman, J.(1967), “When the Price is Wrong by Design”,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69-76.
- _____ (1969), “Transfer Pricing in Multinational Firms”, *European Business*, 46-54.
- Tang, R.Y.W.(1970), *Transfer Pricing Practice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Tang, R.Y.W.(1979), *Multinational Transfer Pricing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Watson, D.J.H. and J.V. Baumler(1975), “Transfer pricing, A behavioral context,” *Accounting Review*, 466-474.
- Wu, F.H. and D. Sharp(1979), “An Empirical Study of Transfer Pricing”,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ccounting Education and Research*, 71-99.
- Yunker, P.J.(1982). *Transfer Pricing and Performance Evaluation in Multinational Corporations, A Survey Study*, New York, Praeger Publishers.

Characteristic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Choosing Non-Market Based System on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Young Na* · Jung-Sik Kim** · Jung-Ki Lee*** · Seon-Pyo Lee****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s the influence of environmental and firm-specific variables on the selection of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strategies. The primary data for this research were obtained from 141 multinational enterprises by means of a questionnaire Survey. Responses to the questions were analyzed by performing a factor analysis and by constructing a PROBIT model. The findings suggest that taxation factors and a firm size are significantly critical determinants in the selection of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strategies by multinational enterprises.

Accordingly,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would be useful for real-world practitioners on business in multinational enterprises who may be interested in identifying critical variables for designing a transfer pricing strategy.

* Associate Prof. Young Na, Chung-Ang University
** Prof. Jung-Sik Kim, Chung-Ang University
*** Junior-Assistant Prof. Jung Ki Lee, Nam-Seoul University
**** Junior-Assistant Prof. Seon Pyo Lee, Daewon University